

2008. 10. 30(목)

제1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 5분 자유발언서

속초항 신항로 개설의 설레임



속 초 시 의 회  
(김강수 의원)

## 속초항 신항로 개설의 설레임

안녕하십니까?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채용생 시장님, 동료 이금자 의원, 우리시 사회단체장님들과 함께 지난주 속초~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연결하게 되는 신항로 개설에 앞서 행하여진 시험운항의 방문단 일원으로 속초항에서 뉴 동춘호에 승선하여 20여 시간의 항해 끝에 니이가타 서항에 도착하여 방문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속초항”을 동북아시아 거점 무역항으로 성장시켜 도시발전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만들자 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신항로 시험운항은 수도권, 충북권, 경북권 수출업체가 일본,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지역으로의 그토록 염원하던 뱃길을 우리 속초시가 열었다는 점, 따라서 속초항으로부터 북방교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 속초~일본 니이가타 항로 개설을 한국 동안과 일본 서안을 우리 속초를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정기화물 여객선 루트를 개설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봄 본취항을 전·후하여 풀어야 할 난제들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방문기간 중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신항로를 통한 양지역의 상호 공동 도시발전과 교류증진 방안에 대하여 관계관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측은 이번 시험운항을 위하여 니이가타현과 니이가타시, 본항로의 민간참여 회사 및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출자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정+민간+연구소가 이 항로 조기개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일본측에서는 이번 시험운항 시 우리 방문단을 태우고 갔던 동춘호를 이용하여 니이가타 지역과 도쿄 지역에서 행정과 경제계 인사 60여명으로 사절단을 구성하여 중국 훈춘 지역과의 경제교류 강화를 위해 출항하는 발 빠른 움직임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훈춘시에서는 이미 조성한 외국인 투자공단에 한국 및 일본자본을 유치하고자 신항로의 조기개설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도 일본측 민간사업자와의 미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훈춘시와 니이가타시에서는 내년 봄 신항로가 본 취항에 들어가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는 행정관계자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속에서 내년 봄 본취항을 준비하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음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무역량 감소, 금융경색의 여파로 운영자본 차입의 어려움, 환율변동 폭 증가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 요인으로 항로개설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예상 할 수 있겠으며,

장거리 해상여객 운항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이용객 편의 증진이 가능한 카페리선박의 용선확보 등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니이가타 서항의 여객터미널과 같은 수준의 속초항 국제 여객터미널 개수 문제의

필요성과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 예로 니이가타시의 경우 중앙정부인 국토교통성에서 공항 항만과장을 파견하여 업무를 담당케하면서 예산문제 등 중앙정부와 니이가타시와의 교량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감이 교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항로 개설 후 조기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객확보와 함께 컨테이너 물류량 확보가 관건이겠습니다만 기존 북방항로의 경우 2000년 4월 취항 후 약 7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여 비로소 안정적인 물류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항로의 개설시 북방항로의 안정적인 물류량 확보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내에 한·일간의 수출입 물류량을 파악하여 얼마나 속초~니이가타 항로로 유치하느냐가 운항 초기의 적자 폭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방문단 일행은 니이가타 방문 중 세계적으로 우수한 시설을 갖춘 「호쿠에쓰 제지공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이 제지공장은 본 항로가 개설되면 부산항을 거쳐 한국에 수출하던 수출 루트를 속초항을 통하여 수출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항로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지공장의 플랜트 시설에 깨끗한 공장 주변을 보고 감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함께 인적 자원의 확보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속초항의 활성화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합니다. 최소 3~4년 정도는 항만 활성화 담당

부서에서 일할 우수 직원의 선발 및 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례가 전무한 업무로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자 진척이 더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사업 부서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이 있다면 열과 성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정책의 변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항의 항만인프라 확충방안과 이용증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즉, 속초항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경제의 현실 속에서 우리시민의 노력으로 개척한 속초항 중고자동차 수출기지화 사업을 통하여, 연간 약 1억불(1,300억원)의 외환을 거둬들이는 효자노릇으로 국가의 외환위기 극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주고 있으며,

지난 2006년 10월부터 신항로 개설을 위하여 관련 4개국의 사회·경제·정치 구조가 상이함을 극복하면서 시험운항이 성사되기까지 끈질기게 노력해 주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속초항물류사업소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